

서평

## 대만의 현대화

- 역사·문화적 회고와 전망\*

공유식\*\*

예능프로그램 “꽃보다 할배”의 방영이후 대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사실 대만은 한국의 제 7대 교역국이고 한국도 대만의 제 5대 교역국일 정도로 이미 경제적으로는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 지역이다. 경제적, 사회적 교류가 이처럼 빈번하지만 대만의 역사에 대하여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 대만의 현대화 과정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 일본의 식민지를 거치면서 식민지근대화를 겪었고, 국민당 권위주의체제를 겪으면서 개발독재를 경험하였으며 80년대 말부터 민주화 과정을 이행하면서 2000년, 2008년, 2016년의 세차례 민주주의 절차에 의한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시기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우리나라와 상당히 비슷하다.

대만의 민주화 과정에서 불거진 대만사회의 가장 큰 갈등요소는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다.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표방하고 있는 현 집권당 민진당 정부와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표방하는 국민당과의 갈등, 그리고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도 충돌되기 때문에, 민진

---

\* 황견지에(黃俊傑) 지음, 강준영, 장영희, 안성수 옮김, 『대만의 현대화』 (한국외대 지식출판원, 2016)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만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당이 집권하고 있는 지금, 양안은 이미 갈등을 겪고 있고 향후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다.

저자는 이러한 대만의 현대화문제와 정체성 문제에 대하여 본서를 통하여 그 역사적인 근원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저자는 대만의 현대화 과정 중,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토지개혁으로 보고 있다. 대만의 토지개혁은 대만의 산업화 과정에 확실한 기반 역할을 하였다. 대만 토지개혁에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사회문화적인 충돌과 갈등부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저자는 이런 점에 착안하여 토지개혁과정에서 나타난 모순들과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하여 본서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역사, 문화연구자로서의 저자의 통찰력으로 심도 있는 분석을 하였다.

대만의 문화정체성에 대하여 저자는 민주화 과정속에서 대만의 문화적인 새로운 자아인식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과정과 배경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만내의 정체성의 복잡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이것이 현대화 과정에서 어떻게 현현(顯現)하고 있는지 잘 설명하고 있다.

대만의 현대화 과정의 정치경제적인 연구는 다수가 있지만 그 문화적 근원을 분석하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저자는 대만 내 역사학계의 대가로서, 유가사상과 동아시아 문화, 현대대만의 역사에 대한 연구에 매진하여 왔다. 본서는 그 연구의 결과물 중의 하나로, 대만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